

선교지 소식 (NeverKnowLand 이원엽/엄현주 선교사)

앞으로는 1 년에 봄, 가을 2 번의 학교를 3 개월간(4 주와 12 주중 선택)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가을 9 월 1 일에 열리는 학교부터 저희가 직접 광고도 하고 자리 잡지 못했던 행정상의 여러 부분을 만들며 세우가고 있는 중 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하던 학교들과는 다르게 지원서의 질문이나 개인 정보등을 자세히 다룰 수 없는 제약이 많아 전적으로 저희를 도우시는 분만 의지하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 모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Korean Language Program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의 일반적인 여행사 업무 전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도 가능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직접 만나 일 보는 걸 선호해서 연결에 있는 크라훈 여행사를 통해 관광객이 오면 필요한 비자 서류 업무나 일정 등을 위해 라진 현지 여행사에 직접 찾아 갑니다. 필요하면 연결에서 직접 팀을 인수받아 국경을 통과해 라진으로 인도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행 사업이 활성화되고 손님이 많아져야 저희 부부가 이 곳에 오게 된 명분도 서고 회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나 회사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기증물자 위탁입니다. 외국 NGO 들이 원하는 물자를 주문하면 저희가 현지의 탁아소, 유치원, 학교나 고아원 등에 구입과 배달을 맡아 줍니다. 회사가 생산판매 하는 콩기름과 콩고기(인조고기), 들기름과 시장에서 옥수수 쌀 등과 같은 곡류, 과자와 사탕류, 된장, 건축 자재 등을 주문 받은 수량대로 구입하고 트럭에 실어 내보냅니다. 온실과 밭에 농사도 짓기 때문에 수시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일도 합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대도시에서만 살던 저희가 땅을 갈아 감자나 고추 등의 농작물을 심고 김을 매고 하는 일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처음에는 몸살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땅을 갈아 씨를 심고 퇴비를 주면서 비가 적절히 내려 열매가 잘 맺히고 풍성히 수확하기를 바라며 농작물을 심으면서 오래 묵은 이 땅이 기경되고 생명의 씨가 뿌려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그 분께서 은혜를 부으시도록 간절히 마음을 모읍니다.

이 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한 차를 타고 30 분 이상씩 출퇴근을 해도 묻는 말 외에는 말 한마디 없고 인사조차 안 하던 분들이 지금은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마주치면 이를 다 드러내고 웃어주며 반가워 해 주는데 어떨 땐 그 미소에 가슴이 울컥해 집니다. 정은 얼마나 많고 마음이 따뜻한지 우리에게 비하면 부족한 게 많은 분들인데 옆에 아이들이 있거나 손님이 갑자기 오면 본인들 뒀이 줄어 들텐데도 먼저 챙기고 반드시 나눠 주는 모습을 보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정 많고 순박한 사람들이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난 24 년간 했던 것들 - 가르치고 훈련하고 전하는 삶-이 아닌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가르치던 것들을 살아가고 있는 중 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 아닌 그런 것은 관심도 없는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불들고, 왜 여기에 있는지 날마다 그 부르심을 확인하며, 끊임없이 일이 있는 곳에서 마리아의 태도를 잃지 않으려 피곤한 육체와 씨름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 비슷한 거 같으나 같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나눠주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손을 잡고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며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낙심하지 않으려 약속의 말씀을 잡고 나의 시각이 아닌 그 분의 시선과 귀와 마음을 가지려고 얼굴을 그분께 향하는 것을 배웁니다. 소위 말하는 "사역"의 테두리 없이 반복되는 일상과 노동 속에서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 쉽지만은 않은 이유는 아직도 제 생각과 경험, 지식 그리고 결과가 그 분의 마음과 뜻보다 앞서가려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이곳에 온 후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 중 입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주시고 계속해서 할 수있다 말씀 하시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크고 높은 성벽을 보고, 거인을 보고, 그들이 가진 철벽거와 말을 보며 할 수 없다고 안 될 거라고 말 합니다. 현실과 상황이 말씀보다 앞섭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지 못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불드러는 사람들을 더 흔드는 상황이 반복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능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그 분의 뜻이고, 계획이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 하셨기에 가능한거라고...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다음 소식을 드릴 때까지 어떤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저희와 함께 하는 선생님들이 날마다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눈으로 보는 것들을 마음에 담아 사랑으로 토해낼 수 있도록,결렬된 틈에 충성됨으로 서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살아계신 아버지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교회소식 (Announcement)

새 가 족 박준식(401-209-4144)/김만재(401-209-5557) 인도
한재민(765-464-9625)/김주영(765-464-9543) MK
곽용준(617-206-0206)/박지연(971-601-4104) 베트남
김선장(213-357-7115) COME
신동석(540-750-0433)/정소영(540-750-0434) 베트남
김영(757-636-4463)/김수미(404-723-9996) 현지교회
하정석(503-550-9976)/박선혜(971-285-5346) 난닝

정 기 당 회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금 요 기 도 회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저녁 8시)

구역장/교사모임 다음 주에 구역장/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본당 2시30분)

허 리 케 인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위한 특별헌금에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PCA 서북노회 10월9부터 10월11일까지 있습니다.

선교대회말씀 CD 구입하실 분들은 미디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성경공부 고린도후서가 10월8일에 끝나고 디모데전서 공부가 10월22일부터 시작됩니다.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담당: 구희옥 권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 교 2017년 하반기 친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친교 배식/정리는 5남전도회입니다.

교우동정 **원채린:** 루마니아 대학 영어 교수로 일년간 수고합니다.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권양금/권재현/김미영/송병수/유재항/이봉희/이영실/이지영/이지현)

모임 및 행사 (Events)

10월 1일	(주)	성찬식/정기당회
10월 6일	(금)	금요 기도회
10월 8일	(주)	구역장/교사 모임
10월 13일	(금)	All Generation Worship
10월 29일	(주)	종교개혁 기념주일/연합예배
10월 31일	(화)	Harvest Party

오레곤에덴장로교회

Eden Presbyterian Church of Oregon P.C.A.

2017년 10월1일 (제22권 40호)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

원 로 목 사	이경천	(Rev. Joseph K. Lee)	
담 임 목 사	원정훈	(Rev. Peace J. Won)	
교 육 목 사	곽성환	(Rev. Sung H. Kwak)	(청년)
	김용규	(Rev. Elliot Kim)	(장년)
	다니엘 리	(Rev. Daniel Lee)	(EM/다문화)
전 도 사	고현준	(James Ko)	
	니콜라스 서	(Nicholas So)	
	라빈	(Teacher Robin Williams)	
파 송 선교사	스테파니아	(Stefania Parasut)	
시 무 장 로	박홍문	(Kenneth Park)	이곤일 (Chris Lee)
	이양수	(Yang S. Lee)	이효성 (Hans Lee)
	정석재	(Samuel Jeong)	
지 휘 자	이효성	(Hans Lee)	이정아 (Jung-Ah Lee)
반 주 자	윤영서	(Young-Seo Yoon)	윤재선 (Jae Sun Yoon)
오 르 간	박인화	(In-Hwa Park)	

협력선교단체 및 선교사

난닝 (LRC/김00) 동북아 (과기대/김00) 러시아 (GP/박동국) 루마니아 (에덴/스테파니아)
말리 (COME/정민경) 북한 (모퉁이돌) 베트남 (다리놓는 사람들/박종암)
알바니아 (WEC/황태연) 온두라스 (신학교/청소년 장학/장동진)
온두라스 현지인 교회 (모델로/과나카스떼/실리시오)
요르단 (난민/설00) 인도 (JDM/서관옥) 중국 (이안드레) 터키 (박00)
캄보디아 (하베스트/차세대교육/김해준) 파푸아뉴기니 (NTM/문성) 파키스탄 (SIM/김인영)
MK (MKC/허지연) MK장학사역 (M&SC)

1200 SW 185th Ave. Beaverton, OR 97006 <http://www.oregoneden.com>
사무실 503-848-8168

예 배 순 서

9:30/11:30 예배인도 원정훈 목사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 참회의 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함께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교독문27번 다함께
찬송 Hymn	37장/91장 다함께
기도 Prayer	1부:김범수 집사 2부:권선엽 집사
성찬식 sacrament	147장 다함께
헌금 Offering	다함께
* 봉헌송 Offertory Hymn	353장 1절 다함께
* 봉헌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요리문답 Catechism	다함께
환영광고 Welcome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렘7:1-7(구1061p) 인도자
찬양 Choir	성가대
설교 Sermon	'진정한 성전' 원정훈 목사
* 찬송 Hymn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기도문(Lord's Prayer)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1부:원정훈 목사 2부:이경천 목사

표는 다 같이 일어서서 (Indicates please stand)

기도/안내/봉사

	이 번 주 (10/1)	다 음 주 (10/8)
기도	1부:김범수/2부:권선엽	1부:강지호/2부:이양수
안내	1부:김동식 2부:김선영/임향숙	1부:김동식 2부:김선영/임향숙
헌금	1부:김주찬/조정희/오규창 2부:이용호/이혜진/강지영	1부:김주찬/조정희/오규창 2부:이용호/이혜진/강지영
친교	윤보선/박다예	이경하/이순우
친교봉사	온두라스 현지교회	온두라스 신학교
배식/정리	5남전도회	5남전도회
주차안내	홍동호/Tony P./Sarah J.	홍동호/Tony P./Sarah J.
토요청소	김태민/류정훈/이준성(10/7)	정석재/이용호(10/14)
타운봉사	사랑팀(10/7)	공휴팀(10/14)
주간관리	이곤일/강지호/이순희/임향숙	박홍문/임사혁/백동현/박인화

예 배 시 간

	시편 강해	원정훈 목사
수요예배 (7:30PM)	이번 주 알바니아 다음 주 아프리카	기도:강지영 집사 기도:김도준 집사
새벽예배	화-목 5:30 AM 본당 금 5:30 AM 본당	원정훈 목사 곽성한 목사
금요찬양 기도회	매 월 첫 째 (한 어) 들 째(All Generations) 8:00PM 본 당	원정훈 목사
영 어 예 배	E M 주 일 9:30AM	예 배 실 2 다니엘 리 목사
교 회 학 교	영 아 부 주 일 11:30AM	영 아 부 실 김동식 집사
	유 치 부 주 일 11:30AM	유 치 부 실 Robin Williams
	유 초 등 부 주 일 11:30AM	본 당 2 층 고현준 전도사
	중 고 등 부 주 일 11:30AM	예 배 실 2 Nicholas Yi So
	중 고 등 부 금요일 7:30PM	예 배 실 2
	A W A N A 수요일 7:30PM	친 교 실 2 고현준 전도사
	한글학교 주 일 1:30PM	각 교 실 김동숙 집사

성경/기도모임/에덴 성경공부(EBS)

모	일	시 간	장 소	개 강	대 상	담 당 자
중 보 기 도	목	10:00	본관 2층	진행중	누 구 나	구희옥 권사
핵 심 교 리	주 목	13:30 10:00	사무동 2층 (4 0 2)	9/24	새 가족 및 기 존 신 자	원정훈 목사
실버성경공부	화 월 1회	10:00	대 예 배 실 (1 0 1)	10/17	60 세 이 상	원정훈 목사
고 린 도 전 서	토 목	10:00 10:00	본 관 2 0 3	진행중	누 구 나	김용규 목사
고 린 도 후 서	주	09:30 13:30	본 관 2 0 3 사무동302	진행중	누 구 나	김용규 목사
1 4 주 제	주	13:45	소 예 배 실	진행중	K M 청 년	곽성한 목사
레 위 기 토	금	10:00	본 관 2 0 4	9/30	누 구 나	곽성한 목사
복 음 서	금	19:30	소 예 배 실	10/6	영 어 소 통 자	다니엘리 목사
마 더 와 이 즈	화	9 : 3 0 20:00	본 관 2 0 4 사무동402	9/26	여 성 도	소그롬인도자 (지혜 DVD)

1년통독성경읽기/매일성경

	구 약	신 약	매 일 성 경
10/01 (주)	사 32-33장	골 2:1-15절	렘 8:4-17절
10/02 (월)	사 34-36장	골 2:16-3:4절	렘 8:18-9:6절
10/03 (화)	사 37-38장	골 3:5-4:6절	렘 9:7-16절
10/04 (수)	사 39-40장	골 4:7-18절	렘 9:17-26절
10/05 (목)	사 41-42장	살전 1장	렘 10:1-16절
10/06 (금)	사 43-44장	살전 2장	렘 10:17-25절
10/07 (토)	사 45-47장	살전 3장	렘 11:1-8절

예배는 삶이 되며, 삶은 예배가 되게 하소서

교회학교 말씀

영 아 부 :	마태복음 (Mt) 1:18-25	장희주 집사
유 치 부 :	요한복음 (Jn) 11:1-44	Robin Williams
유 초 등 부 :	마태복음 (Mt) 1:1,28:20	James Ko 전도사
중 고 등 부 :	야고보서 (Jas) 2:1-13	Nick So 전도사
E M :	골로새서 (Col) 4:10	James Ko 전도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Heidelberg Catechism)

제24문: 이러한 신앙고백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답: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가 그것입니다

Q 24: How are these articles divided?

A: Into three parts:
God the Father and our creation; God the Son and our deliverance;
and God the Holy Spirit and our sanctification.

제25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세 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답: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신6:4; 고전8:4, 6 2; 마3:16-17; 28:18-19; 눅4:18; 사61:1; 요14:26; 15:26; 고후13:14; 갈4:6; 딤후3:5-6)

Q 25: Since there is only one divine being, why do you speak of three: Father, Son, and Holy Spirit?

A: Because that is how God has revealed himself in his Word: these three distinct persons are one, true, eternal God.

지난주일 헌금

일	조	소계:\$
십 일	헌 금	7,120.00
주 일	헌 금	2,325.00
감 사	헌 금	789.00
선 교	헌 금	2,225.00
주 교	헌 금	95.50
구 역	헌 금	75.00
헌 신	예 배	379.00
기 타	헌 금	340.00
주 축	헌 금	210.00
주 계		\$13,558.50

하나님께 예배 세상에서 정직 열방을 향한 선교